



보도자료

담당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02-2133-5005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 6쪽	양성평등협력팀장	전원신	02-2133-5023

서울시, '기억의 터' 내 설치된 임옥상 작품 2점 철거 완료

- 성추행 유죄 선고 임옥상의 작품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5일(화) 철거 완료
- 서울시민 1,000명 설문조사 응답자 65%가 "임옥상 작품 철거해야" 응답
- 위안부 기념공간 '기억의 터'는 유지...관계자·전문가 제안받아 새 콘텐츠 조성

- 서울시는 남산공원 일제통감관저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의 조형물 2점,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5일(화) 오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억의 터' 내에 있던 임옥상의 작품은 모두 철거됐다.
- 서울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인 만큼,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옥상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달 17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옥상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53.6% 해당 작가 참여 조형물만

철거, 11.4% '기억의 터' 전부 폐쇄) 정의기억연대 등의 주장대로 작가 이름만 삭제하고 전체 조형물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23.8%였다.

- 서울시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기억의 터'가 시민 모금 등을 거쳐 조성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억의 터'는 유지하고, '기억의 터' 내에 있는 임옥상의 조형물만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서울시는 조형물이 철거된 자리는 조성 당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로 채우는 등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산 '기억의 터'에서 철거되는 임옥상의 '대지의 눈' 조형물



남산 '기억의 터'에서 철거되는 임옥상의 '세상의 배꼽' 조형물



기억의터 기부자 이름 기재 (5mX3m)



임옥상 작가 작품(지름 3m)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기재



임옥상 작가 작품(8mX3.5m)
위안부피해자 247명 이름 기재



서해성 작가 작품
일본군 동상 전해 거꾸로 설치('15.8)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설치('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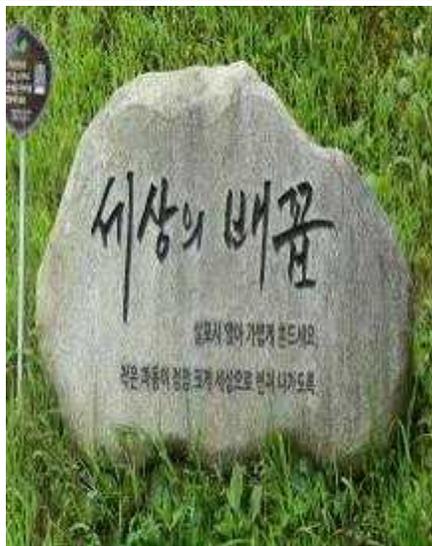
참고자료 3 철거 대상물 현황



세상의 배꼽
(지름 : 303cm)



대지의 눈
(지름 : 803cm 높이 : 357cm)



표지석 1



표지석 2

참고자료 4 기억의 터 여론 조사 결과

- 조사내용 : '기억의터'내 조형물 존치 여부
- 조사기간 : '23.8.8~8.9
- 조사대상 : 서울시민 1,000명
- 조사수행기관 : (주)케이스탯컨설팅

